

민주당 ‘텃밭’서 85% 안팎 압도적 지지…전국 1·2위

이재명 광주·전남득표율분석

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,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광주·전남에선 이재명 후보에게 전국에서 가장 높은 85% 안팎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다. 전남 득표율은 85.87%로 전국 17개 시·도 중 1위, 광주는 84.77%로 2위를 기록했다.

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 (개표율 100%)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광주 84.77%, 전남 85.87%로 집계됐다.

2위 김문수 후보는 광주 8.02%·전남 8.54%, 3위 이준석 후보는 광주 6.23%·전남 4.69%를 득표하는 데 그쳤다.

이 당선인은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 광주 84.82%, 전남 86.10%의 득표율을 기록했다. 21대 대선에서는 광주에서 0.05%p, 전남에서는 0.23%p 등 소폭 하락했지만 전국에서는 가장 높은

전남 85.87%…광주 84.77%

내란 종식·정권 교체 열망 반영

“민주 지지보단 내란 심판 성격

변화 없인 내년 地選 장담못해”

득표율이었다.

이전 대선의 경우 민주당 소속 대통령 당선인 중 문재인 전 대통령은 19대 대선 때 광주 61.14%, 전남 59.87%를 득표했다. 하지만 당시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출마하면서 야권 표가 분산된 만큼 직접 비교는 힘들다는 지적이다.

김대중 전 대통령은 15대 대선 때 광주 97.28%, 전남 94.61%를 기록했고, 노무현 전 대통령도 16대 대선 당시 광주 95.17%, 전남 93.36%의 득표율로 90%가 넘는 ‘절대 지지’를 받은 바 있다.

최종 투표율은 광주 83.9% (전국 1위)·전남 83.6% (전국 2위) 등을 기록해 20대 대선 대비 광주 2.4%p, 전남 2.5%p 상승했다.

광주·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·득표율을 기록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·3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지역민의 열망이 오롯이 반영됐다는 게 중론이다.

특히 광주시·시교육청·5개 자치구가 92.5% 투표율을 목표로 집중 캠페인에 나서고, 김영록 전남지사가 사전투표 전날부터 본투표 날까지 일주일 간 매일 동·서부권을 날아들며 투표 독려 1인 캠페인을 실시한 것도 지역민의 투표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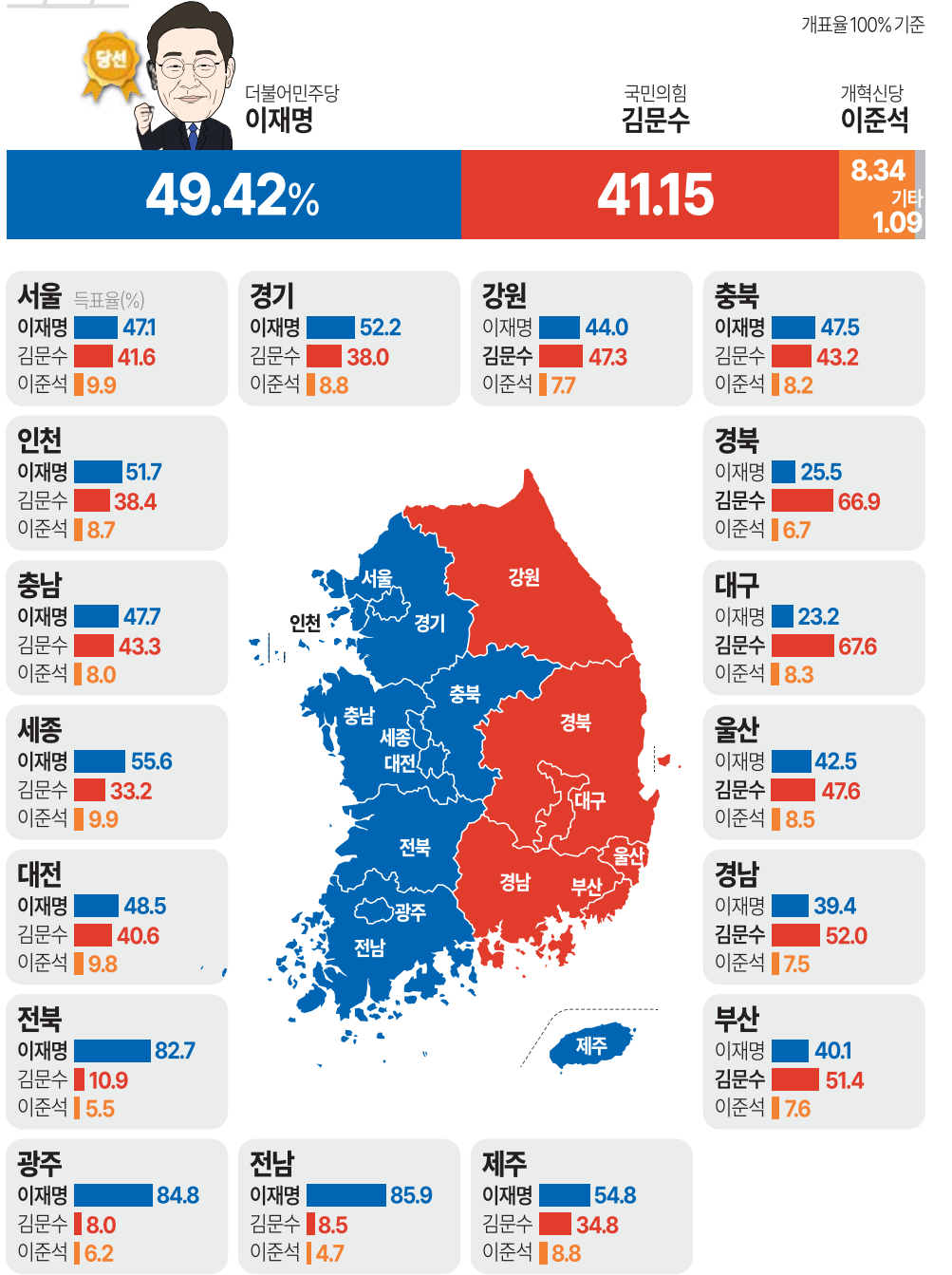
대선 직전에 실시된 4·2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 후보에게 민주당 후보가 패배할 만큼 민주당에 대한 지역 내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었지만 불법 계엄과 내란 사태를 끝내기 위해 결국 정권 교체를 선택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.

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“광주·전남 민심이 민주당에 호의적이지 않은 게 사실”이라며 “불법 비상계엄과 내란이라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지층이 다시 결집한 것으로 풀이된다”고 말했다.

이 관계자는 또 “이번 대선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라기 보다는 내란 심판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봐야 한다”며 “앞으로 6개월 간 새 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그동안과는 다른 변화된 모습을 보이느냐 여부가 내년 광주·전남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성패를 가늠할 최대 관건이 될 것”이라고 전망했다.

한편, 전국적으로 개표가 100% 완료된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는 49.42%,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.15%,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.34%를 각각 기록했다. 이 후보는 1천728만7천513표를 얻으며 김문수 후보(1천439만5천639표)를 8.27%p(289만1천874표) 차로 꺾었다. /김재정 기자

2025 대선 제21대 대통령 선거 결과



선거 벽보 철거 4일 오전 광주 북구 오치동 일대에서 오치2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관계자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철거하고 있다. /김애리 기자

1위 박지원·2위 문금주·3위 이개호…의원 평가 반영

전남 국회의원 지역구별 득표율

해남·완도·진도 선거구 88.80%

고흥·보성·장흥·강진은 87.46%

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각 지역구별 투표율과 득표율 등 대선 ‘성적표’를 국회의원 평가에 반영키로 하면서 이번 본투표 성적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.

4일 민주당에 따르면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얻은 전남의 최종 득표율은 85.87%로 집계돼 2022년 제20대 86.10% 보다 0.23%p 낮았다.

국회의원별로 구분해 보면 박지원 의원의 지역구인 해남·완도·진도가 총 유효투표수 10만3천501명 중 이 후보가 9만1천907표를 얻으며 88.0%를 기록해 1위에 등극했다.

2위는 문금주 의원의 지역구인 고흥·보성·장흥·강진(87.46%)으로 전체 12만4천932표 중 10만9천263표를 얻었다. 3위는 이개호 의원 지역구인 담양·함평·영광·장성이 87.29%로 전체 12

만6천873표 중 11만753표를 득표했다.

이어 목포(김원이 의원) 86.81%, 영암·무안·신안(서삼석 의원) 86.60% 등의 순이었다.

시·군별 득표율 순위를 보면 완도가 89.90%로 1위, 함평이 89.17%로 2위, 신안이 88.73%로 3위를 차지했다. 지난 4·2 군수 보궐선거에서 조국혁신당에 달미를 잡혔던 담양의 경우 88.08%의 지지율을 보이면서 전남 22개 시·군 중 6위를 기록했다.

민주당은 이번 21대 대선 성적과 20대 대선 성적을 계량화해 국회의원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. /김진수 기자

국힘, 광주·전남서 다시 ‘한 자릿수’

광주 봉선2동서 金 13.38%

尹 21.87% 대비 8.49%p ↓

국민의힘은 불모지 호남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한 자릿수 득표에 그치며 민주당의 아성을 넘지 못했다.

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낙선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광주 8.02%, 전남 8.54%를 얻는 데 그쳤다.

지난 20대 대선에서 당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얻은 광주 12.72%, 전남 11.44%의 득표율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. 윤 전 대통령의 광주·전남 득표율은 보수 정당 후보로는 역대 최고치로 호남

에서 유일하게 ‘마의 벽’인 10%를 돌파한 바 있다.

특히 윤 전 대통령은 광주 남구 봉선2동에서 21.87%의 득표율을 기록하기도 했다. 이번 선거의 경우 김문수 후보는 봉선2동에서 13.38%를 얻는 데 그쳤다. 윤 전 대통령보다 8.49%p 낮은 지지를 받았다.

김문수 후보는 광양시 금호동에서 21.41%를 득표했다.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때 금호동에서 28.14%의 득표율을 기록했었다.

역대 대선과 비교하면 김문수 후보는 보수 정당 후보로 광주는 두 번째, 전남은 세 번째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.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얻은 광주 7.76%를 넘어섰고 전남 10%보다는 낮았다. /변은진 기자

창조클럽 아카데미 12기 원우회가 광주매일신문 창사 34주년을 축하드립니다.

회장 | 이 은 숙 수석부회장 | 전 현 수 부회장 | 양 승 환, 강 선 미, 정 동 철, 박 창 수 사무총장 | 양 승 재 외 12기 원우회 일동